

# 『璿源寶鑑』의 기본구성과 제작배경\*

황인혁\*\* · 김기덕\*\*\*

## 목차

머리말

### I. 『璿源寶鑑』의 구성 및 山圖의 특성

1. 『璿源寶鑑』의 구성
2. 『璿源寶鑑』 山圖의 특성

### II. 『璿源寶鑑』의 제작배경

1. ‘璿源’과 ‘寶鑑’의 의미
2. 『璿源寶鑑』의 출판환경

맺음말

## 머리말

『璿源寶鑑』은 왕실족보의 하나이다. 그러나 『璿源寶鑑』은 기존의 왕실족보와는 달리 조선시대 왕실 구성원의 능에 대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정보전달의 방편으로 모든 구성원에 대한 山圖를 수록하고 있다.<sup>1)</sup>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30-B00210)

\*\*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주저자

\*\*\*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교신저자

1) 여기서 왕실 구성원이란 전주이씨 시조인 사공공 李翰과 추존 4왕인 穆祖·翼祖·度祖·桓祖, 그리고 태조 이성계에서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까지의 왕과 왕비를 의미한다.

族譜는 신분과 지위에 따라 王室族譜와 私家族譜로 구분된다. 조선이 건국되고 왕실은 世系를 분명하게 하여 왕실의 위엄을 높이고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왕실족보를 편찬하였다. 왕실의 친족제도 정비와 왕실족보의 편찬은 私家의 족보편찬에 영향을 주었다. 혼인을 통해 왕실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대부들은 관료제와 신분제의 재정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왕실과 마찬가지로 족보를 편찬하였다.

族譜는 조상에 대한 기록이며, 기록내용으로는 字(시호를 기재하기도 함), 생년(월일), 과거(등과년), 관직(품계), 졸년(월일), 묘소(좌향) 등이 있다. 조상이 모셔진 묘소는 글만으로는 현장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 묘소 주위의 환경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를 山圖라 한다. 山圖는 통일신라 이후 중국의 풍수지리 이론과 함께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 초기에는 도읍을 건설하고, 왕릉, 태실의 위치 등을 정할 때 사전에 국왕에게 보고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山圖는 국왕의 국정운영 및 왕실의 중요한 행사의 참고 자료로 운영되었고, 그 당시에는 풍수그림의 의미보다는 지도로서의 의미가 컸다고 볼 수 있다.<sup>2)</sup>

조선후기에는 山圖가 사대부의 족보에도 삽입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동일 선조에서 파생된 宗法的 연결 고리와 山圖의 표현법인 祖宗的 산맥의 흐름이 일맥상통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山圖는 이러한 종중 의식과 결합하게 되고 조상의 묘지를 풍수적 명당 국면으로 그려 명당 발복을 기원하고, 종중 구성원의 결속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sup>3)</sup>

왕실족보 가운데 『璿源錄』·『宗親錄』·『類附錄』·『御牒』·『八高祖圖』는 조선 전기부터 간행되었으며, 『璿源系譜紀略』·『王妃世譜』·『璿源續譜』 등은 조선후기에 새롭게 간행되었다. 조선전기에 간행된 왕실족보는

2) 이성미 외, 『조선왕실의 미술문화』, 대원사, 2005, p.25

3) 이형운, 『조선시대 산도를 통해서 본 지리인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2

왕실의 친족들을 파악하여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새롭게 간행되기 시작한 왕실족보들은 16세기 이후 예학의 심화와 종법적인 가족제도의 정착 등으로 변화된 사회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조선후기 왕실족보는 왕실 친족의 예우와는 무관하게 世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조선시대 왕실족보의 마지막 형태는 『璿源續譜』이다. 『璿源續譜』는 각 왕의 자손록으로 각 왕의 왕자를 派祖로 삼은 派譜를 모아 놓은 것으로, 私家族譜의 大同譜에 해당한다. 『璿源續譜』의 간행은 대원군이 주도하였다. 대원군은 『璿源續譜』의 간행을 통해 종친부를 중심으로 가문의식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왕권강화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일제는 정치, 학술, 사상 관련 서적 출판물은 검열기구를 통해 엄격히 규제하였다. 반면, 구소설과 족보 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문제 삼지 않는 비정치적 출판물에 대해선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여 족보간행의 전성기를 이룬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조선왕조 모든 왕릉에 대한 山圖가 수록된 『璿源寶鑑』이 출간되었다.

『璿源寶鑑』은 전주이씨 시조인 사공공 李翰과 추존 4왕인 穆祖·翼祖·度祖·桓祖,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까지의 王陵 山圖를 수록하고 있어 왕실족보의 성격이 있다. 이 책은 전체 100쪽의 비교적 간략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山圖가 30점, 태조관련 사적지가 4점 수록되어 있다. 나머지 66쪽은 조선후기의 실학자 이공익이 찬술한 『燃藜室記述』에서 전주 이씨 시조·추존 4왕·태조 이성계에 대한 古事와 조선의 개국과정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이는 족보 구성을 위한 장치로 보이며 사료적 의미는 없다. 따라서 『璿源寶鑑』이 山圖에 중점을 둔 譜書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사례가 없어 왕실 山圖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璿源寶鑑”의 어원을 서지적으로 고찰하고,

『璿源寶鑑』이 발행된 제작배경과 내용을 규명하여, 조선의 왕릉과 왕실 산도를 연구하는데 기초가 되고자 한다.

## I. 『璿源寶鑑』의 구성 및 山圖의 특성

### 1. 『璿源寶鑑』의 구성

[표 23] 『璿源寶鑑』의 목차와 구성

쪽구분	내 용	燃藜室記述
001 ~ 002	璿源譜略序	璿源續譜序
003 ~ 036	山圖	
037 ~ 050	完山實錄	
051 ~ 054	列聖實記 四祖故事 (穆祖·翼祖·度祖·桓祖)	577
055 ~ 066	太祖高皇帝 (潛邸時事)	579
066 ~ 083	高麗政亂	585
083 ~ 086	開國定都	607
086 ~ 087	處置諸王氏	611
087 ~ 088	定宗卽位	
088 ~ 092	太宗定社	612
092 ~ 094	芳幹之亂	614
094 ~ 096	駐蹕咸興	615
096 ~ 100	開國定社佐命功臣錄	

『璿源寶鑑』의 구성은 비교적 간단하다. 세부 구성은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지만, 간략히 둘로 나누면 山圖부분과 족보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璿源錄』이나 『璿源系譜紀略』 등 조선시대의 왕실족보와는 구성이 다르다. 즉 전반부는 조선시대 전체 왕릉에 대한 山圖를 싣고, 후반부는 조선후기의 실학자 이공익이 찬술한 『燃藜室記述』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sup>4)</sup> 유달리 山圖를 강조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그런데 조선시대 왕실족보는 山圖를 수록하지 않았다. 능전도나 산릉도의 경우, 족보와는 별도로 제작하고 보관하였으며, 능에 대한 기록과 기념, 뒷날의 보수, 유지 등 특수한 목적과 용도를 위해 일종의 궁중 행사도로서 제작되었다.<sup>5)</sup> 그런데 『濬源寶鑑』은 조선의 왕릉 전체에 대한 山圖를 수록하고 있다. 이는 私家族譜의 영향으로 보인다. 물론 사가족보도 조상의 모든 산소에 대한 山圖를 수록하는 것이 아니고, 시조 또는 중시조 등 상징적인 인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山圖를 수록한다.

따라서 왕실을 계승한 전주이씨 대동보에는 일제시기 당시까지, 족보에 수록할 山圖가 없었다. 전주이씨 문중에서는 조선왕조를 계승한 최고의 문중으로서 山圖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족보에 수록할 山圖를 취합하는 작업을 급하게 추진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장에 상술한 바와 같이 『濬源續譜』를 제작하는데 불과 18개월 밖에 걸리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조선후기와 일제시기에는 문벌의 숭상·가문의 결속과 과시 등의 사회 풍조가 생겨나면서 譜學이 성행하였다.<sup>6)</sup> 그리고 조선 전기부터 족보를 간행했던 명문·거족들의 족보 續刊도 더욱 활발해지고, 북한지방과 신흥세력들에 의한 족보의 창간이 많아졌다.<sup>7)</sup> 이러한 사회적 경향이 명문가문 전주이씨 문중에게 조상에 대한 山圖의 제작을 더욱 서두르게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4) 이규익, 『燃藜室記述』 권1, 민족문화추진회, 1966

『燃藜室記述』은 조선시대 실학자 이규익이 1776년(영조 52)에 찬술한 史書이며, 1966년에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번역·출간되었다. 제1권에 전주 이씨 시조·추존 4왕(목조, 익조, 도조, 환조)·태조 이성계에 대한 古事와 조선의 개국과정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5) 이성미 외, 앞의 책, 2005, p.205

6) 차장섭, 「조선시대 족보의 유형과 특징」, 『歷史教育論集』제44집, 2010, p.264

7) 권기석, 「한국 族譜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학논집』제44집, 2011, p.75

## 2. 『濬源寶鑑』 山圖의 특성

### 1) 왕실산도의 제작 목적에 따른 분류

『濬源寶鑑』은 전체 100쪽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제시기(1931년)에 편찬된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譜書이다. 내부 구성은 山圖가 30점, 태조관련 사적지가 4점 수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왕실족보는 물론 사가족보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이다. 그만큼 山圖의 의미가 강조된 譜書라 할 수 있다.

山圖는 4~5세기경 풍수의 개념이 회화분야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산수화와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성장하였다.<sup>8)</sup> 山圖에 표현되는 주산개념과 사신사 및 산능선에 대한 연맥성 등 풍수적 묘사들은 고지도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山圖는 이 고지도의 분류 중에서 陵殿圖 등과 함께 특수지도에 속한다.<sup>9)</sup>

山圖란 자연 지형을 풍수지리 명당공간으로 형상화한 그림지도를 말하는데, 통일신라 이후 중국의 풍수지리와 함께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sup>10)</sup> 이러한 山圖는 도읍과 궁궐을 건설하고, 王陵 또는 胎室 등의 자리를 정할 때 국왕에 보고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즉 왕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장소의 형세와 건물의 모양 등을 그림으로 도해하여 시각적인 보고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왕은 효과적인 정책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sup>11)</sup> 『朝鮮王朝實錄』에서는 山圖를 陵圖, 山陵圖, 山形圖 등으로 命名하기도 하고, 陵號에 圖를 붙여 표기하는 등 다양하게 표

8) 이상해, 『中國 山水畫와 風水原理와의 相關關係에 關한 一考察』, 『대동문화연구』, 1988, p.170

9) 노정식, 『韓國古地圖 資料 및 그 研究成果와 새 方向摸索을 위한 一研究』, 『대구고대 논문집』, 1977, p.13

10) 이형운, 『風水地理 山圖에 關한 研究』, 대구한의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1

11)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2, p.40

현되어 있다.<sup>12)</sup>

1392년(태조 원년) 태종은 정릉, 화릉, 의릉, 순릉 등 함경도에 있는 태조의 조상 陵에 대한 산세를 그림으로 그려 바쳤는데, 조선시대 山圖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사례로 추정된다.<sup>13)</sup> 조선시대 왕릉들은 모두 그에 관한 기록인 陵誌와 산릉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는 이들 중 극히 일부만이 남아있는데, 대부분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제작된 것들이다.<sup>14)</sup>

왕실에서 제작하는 山圖를 제작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sup>15)</sup>

- ① 특정 공간의 지리와 산세, 혈 등을 묘사하여 능지 선택의 기초 자료로 활용
- ② 葬禮 후, 이에 대한 기록과 기념, 그리고 유지와 보수를 위해
- ③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세우기 위해 직계 선조나 시조의 山圖 제작
- ④ 왕이나 왕비가 身後之地를 정한 후, 이에 대한 증거로 삼기 위해

현존하는 왕실관련 山圖에 대한 제작 목적별 분류는 [표 2]의 내용과 같으며, ④의 내용에 해당하는 山圖는 현존하지는 않지만 『朝鮮王朝實錄』에 관련 내용이 있다.<sup>16)</sup>

12) 예를 들어, 김원릉의 산도는 建元陵圖, 영릉의 산도는 英陵圖, 삼릉의 산도는 三陵圖 등으로 표기하였다.

13) 『태조실록』 권2, 1392년(태조 원년) 10월 28일 병자  
今殿下來獻諸陵山勢畫本 定陵和陵義陵純陵皆在咸州 智陵在安邊 淑陵在文州 德陵安陵在孔州 每陵置陵直權務二人 守陵幾戶 營立齋宮

14) 이성미 외, 앞의 책, 2005, p.206

15) 이성미 외, 같은 책, p.209

16) 『영조실록』 권89, 1575년(영조 33) 4월 4일 을축  
定新陵於明陵右岡 先是 慈聖必欲以明陵之傍 爲日後計 預占良坐原 以山圖屬上 至是命諸大臣看審

[표 24] 왕실 관련 산도의 제작 목적별 분류

산도명	제작 년도	제위 년도	소장처	제작 목적
墓所圖形與山論	1718년	숙종 44년	장서각	①
明陵圖	1757년 이후	영조 33년	장서각 국립문화재연구소	②
莊陵史補(莊陵圖·思陵圖)	1796년	정조 20년	규장각	②
局圖	1800년 이후	순조 원년	장서각(昌陵誌)	②
陵園寢內禁養全圖	1879년	고종 16년	규장각(健陵誌)	②
北道各陵殿圖形	1808년 이후	순조 8년	규장각 장서각 국립문화재연구소	③
越中圖(莊陵圖)	1840년 이후	헌종 6년	장서각	③
全州乾止山圖形	1899년 이후	고종 36년	장서각	③

2) 『璿源寶鑑』 山圖의 특징

『璿源寶鑑』에 수록된 山圖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1867년(고종 4) 완성된 『璿源續譜』의 서문<sup>17)</sup>은 이후 개간되는 모든 『璿源續譜』 및 전주이씨 대동보의 서문으로 사용된다. 이 서문이 『璿源寶鑑』에도 그대로 서문으로 사용되었다.
- ② 山圖 자체의 표현방법과 이를 모사한 『璿源寶鑑』의 표현방법은 다양한 반면, 山圖에 기입된 문자는 모두 동일한 서체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山圖를 할당 받은 모사자들이 각각 山圖를 완성한 후, 한 곳으로 제출된 후 이를 한 명의 기록자가 문자를 기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③ 『始祖司空公陵圖』는 山圖 표현에서는 이례적으로 범례를 사용하고 있다. 범례는 동일한 정보에 대해 동일한 기호로 약속하여 지도의 효율적인 검색을 돕는 기능을 한다.<sup>18)</sup> 따라서 「청구도」나 「대동여

17) 『고종실록』 권4, 1867년(고종 4) 11월 30일 기묘

지도』 등 지도 내부에 담아야 할 정보가 많은 古地圖에 주로 사용되며, 상대적으로 정보의 양이 적게 필요한 山圖에 사용되는 사례는 없다. 그리고 『始祖司空公陵圖』는 길(道), 하천(河川), 산(山), 묘(墓)를 범례로 지정하였는데, 정작 山圖에는 길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본 山圖의 제작자는 고지도에 지식이 있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원본 山圖에는 길의 표현이 있었는데, 모사 과정에서 길이 표현이 생략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산악평면도법 / 산악입체도법

우리나라의 山圖의 산맥표현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풍수서인 『지리인자수지』에서 정립된 산악입체도법을 적용하여 제작되어 왔으며, 조선 후기에 족보와 山圖가 범람하는 시기에는 산악평면도법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sup>19)</sup>

그런데 『璿源寶鑑』의 山圖들은 그러한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대부분 두 가지 기법이 혼용되고 있으며 표현자체가 거칠어 제작자가 원본의 山圖 표현기법을 충실히 따랐는지 알 수 없어 일관된 맥락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⑤ 『璿源寶鑑』에 수록된 山圖에는 왕릉을 풍수적 명당으로 설정하고 이에 준하는 환경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풍수적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풍수에서는 자연을 감각적 지각을 통해 인지되는 物象을 보고 풍수적 길흉을 논하는 방법을 形氣論이라고 한다.<sup>20)</sup> 이는 자연

18) 이기봉, 『김정호의 『청구도』 제작 과정과 지도적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39권 제3호, 2004, p.478

19) 이형운, 앞의 논문, 2010, p.145

20) 고려왕조의 풍수는 형세론이 절대적이었다. 조선왕조의 풍수학(지리학) 고서과목을 보면 『지리신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리서적이 형세론을 중시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조선왕조에서도 형세론이 절대적으로 유통되었다. 이러한 형세론과 구별되는 것으로 좌향론이 있다. 坐向論의 목적은 좌향을 측정하여 그 좌향에 속하는 氣가 무엇인가를 살핌으로써 그 땅의 성격과 길흉화복을 측정함에 있다. 더 나아가 길흉화복을 측정함에

을 최대한 시각화 시켜야하는 山圖의 목적에도 부합하여 山圖의 제작기법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의 5대조의 묘인 瀦慶墓와 永慶墓는 풍수의 理氣論에 의한 논리를 적용하여 山圖를 제작하였다. 이는 『璿源寶鑑』이 모사하였을 원본 山圖의 저자들이 다양한 풍수적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⑥ 山圖에 표기되는 문자의 방향은 혈로 비정되는 묘지에서 주위를 둘러보는 시점으로 등글게 배치되며, 일부는 물길 또는 산길의 방향에 맞추어 기입하는 특성이 있는데 『璿源寶鑑』에는 그러한 전통적 표기법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도 山圖를 모사하는 인원이 山圖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⑦ 『璿源寶鑑』에 수록된 山圖의 제작 년도의 하한선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禧陵孝陵睿陵列聖胎壇在高揚」편에 있다. 이 山圖에는 제목과 그림에 모두 태단이 표시되어있다. 조선왕실에서는 왕의 후손이 태어나면, 그 출생아의 태를 깨끗이 씻은 후 향아리에 봉안하고 기름종이와 과란 명주로 봉하고 붉은색 끈으로 밀봉한 다음, 큰 향아리에 담는다.<sup>21)</sup> 이렇게 보관된 태는 전국의 풍수적 길지를 택하여 묻었는데 전국적으로 300여기에 달하였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인 1930년 4월 17일 일제는 이들 태향아리 중 다수를 서삼릉의 우측 능선자락에 날일(日)자 모양의 공간을 만들고

---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좋은 氣를 얻기 위하여 좌향을 조정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여기서 좌향론은 理氣論과 동일한 의미이다. (김두규, 『풍수학 사전』, 비봉출판사, 2005, p.602, 460)

21) 胎室은 일반적으로 胎峰·胎封·胎墓 등으로 불리이는데 產母가 胎兒를 출산한 후에 나오는 胎盤을 묻은 장소를 말한다. (최호림, 「조선시대 태실에 관한 일 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 vol 7, 1985, p.59)  
胎室은 왕자 및 공주·옹주의 경우는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들고, 왕의 경우는 본래의 태실 위에 臺石·磚石·右裳石·蓋簷石 등으로 태함을 안치시켰다. (박대운, 『朝鮮時代 國王胎封의 風水의 特性 研究』, 동방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1)

강제로 이안시킨 후, 胎壇을 조성하였다.<sup>22)</sup> 그리고 『璿源寶鑑』은 1931년 9월 30일 발행되었다. 따라서 山圖의 실제 제작기간은 1년, 정확히는 18개월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양의 山圖를 18개월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완성하려면 원본을 모사하는 방법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이는 당시까지 왕실산도가 존재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 ⑧ 현존하는 왕실산도는 [표 2]에 정리한 바와 같이 몇 점 되지 않아 아쉬움을 준다. 『璿源寶鑑』에 수록된 山圖는 작품성과 사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해도 전주이씨 시조와 태조의 4대조 그리고 조선왕조의 전체 왕릉에 대한 山圖를 수록하고 있어 조선왕릉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접근할 수 있는 소중한 유일한 자료이다.

## II. 『璿源寶鑑』의 제작배경

### 1. ‘璿源’과 ‘寶鑑’의 의미

계명사가 출간한 『璿源寶鑑』에서는 ‘璿源寶鑑’이란 용어를 “왕실의 系譜淵源을 기록한 귀중한 본보기가 되는 사물을 기록한 책”이란 의미로 풀이하였다.<sup>23)</sup> 『한국고전용어사전』은 조선 건국 초기 왕실 親屬의 譜牒과 殿內의 給事 일을 맡아본 殿中寺의 관직인 殿中卿<sup>24)</sup>과 典籤司를 설명하면

---

22) 박대윤, 같은 논문, p.82

『이왕직 典祀의 출장복명서』에 “1928년 8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숙명공주·숙경공주·태종대왕·세종대왕·인종대왕 태실을 조사해서 태항아리와 지석을 경성(서울)에 봉송하여 봉안하였다.”라는 기록과 “1930년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삼릉경내에 태실49기를 이장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23) 선원보감편찬위원회, 『璿源寶鑑』, 계명사, 1989, p.91

璿源이란 왕실의 系譜淵源을 뜻하는 말로서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 쓰는 어휘이다. 중국이나 일본 등의 漢子文化圈의 다른 나라에서 쓴 용례가 없기 때문이다.

24) 殿中卿의 직제로는 判事 2인, 卿 2인, 少卿 2인, 丞 1인, 直長 2인이 있었다. 그 뒤 태

서 ‘璿源寶鑑’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璿源錄’에 대한 誤記인 듯하다.

“璿源寶鑑”이란 용어는 실록 등 우리나라의 역사기록에 등장하지 않는다. 조선 왕조에서 璿源은 왕실의 의미로, 璿源錄은 왕실족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sup>25)</sup> 寶鑑은 “본보기가 될 만한 매우 귀중한 사물. 또는 그런 것을 적은 책”<sup>26)</sup>이라는 의미가 있어 “왕실의 귀중한 책”에 사용되었던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용어들은 조선시대에 줄 곳 사용되어 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朝鮮王朝實錄』에 수록된 내용 중 “璿源”과 “寶鑑”,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용어들을 검색하여 비교·검색 한 후, [표 3]으로 정리하였다.

[표 3] 『朝鮮王朝實錄』에 등장하는 용어와 빈도수

	왕대	선원	보감	국조 보감	무정 보감	선원전	선원록	보첩	선원 보략	보략
1	태조	1				1		1		
2	정종									
3	태종	6				1	1			
4	세종	27	4			8	10	2		
5	문종	1	1			1				

종 원년(1401) 다시 중부시로 개칭하여 종친의 규찰과 《璿源寶鑑》을 편찬하는 관청으로 확정하였으며, 이후 직제도 바뀌어 《경국대전》에는 도제조 2인, 제조 2인, 정 1인, 첨정 1인, 주부 1인, 직장 1인이 소속하였다.

典籤司는 조선 세종 12년(1430) 宗室諸君의 일을 맡아보던 諸君府를 宗親府로 고치고, 그 실무 담당을 위해 설치한 아문이다. 관원으로 정4품 典籤 1인, 종5품 부전첨 1인을 두었으며, 검임직이었다. 宗簿寺는 종친의 규찰과 《璿源寶鑑》의 편찬을, 종친부 전첨사는 종친 考講 및 각종 雜事를 관장하였다. (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고전용어사전』 권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p700, p707)

25) 김수경, 「17세기후반 宗親의 정치적 활동과 위상」, 『梨大史苑』, Vol 30, 1997, p.49

26) 김상형,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 p1268

1. 본보기가 될 만한 매우 귀중한 사물. 또는 그런 것을 적은 책.
2. 보배롭고 귀중한 거울

	왕대	선원	보감	국조 보감	무정 보감	선원전	선원록	보첩	선원 보략	보략
6	단종	1				1		1		
7	세조	7	7	6		5	3			
8	예종	2	6	2	4	1	1			
9	성종	27	9	5	3	8	13			
10	연산군	9	13	10	1	2	4			
11	중종	56	42	40	7	14	28			
12	인종	1				1				
13	명종	13	27	11	20	6	5			
14	선조	24	6	2	2		20	1		
15	광해군	16	8	3	5		14			
16	인조	7	1	1		3	7	1		
17	효종	6	3	6			2	1		
18	현종	3	1				3			
19	숙종	31	8	6		2	6	3	12	12
20	경종	6	1			1	1	1	4	5
21	영조	116	4	8	1	84	5	17	23	54
22	정조	89	75	28		77	3	4	7	15
23	순조	97	19	13		77		2	18	18
24	현종	11	21	3		6		1	4	4
25	철종	18	2			5	1		13	14
26	고종	203	15	8		127		8	58	62
27	순종	7	12	11		4		2	2	3
	합계	785	285	163	43	425	127	45	141	187

조선시대에 “璿源”이란 용어는 포괄적으로는 ‘왕실일반’을 상징하고, 세부적으로는 ‘왕실족보’를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즉 궁궐에는 御眞을 모시는 “璿源殿”이 있고, 왕실 족보는 『璿源錄』·『當代璿源錄』·『璿源加現錄』·『璿源加現十代錄』·『璿源系譜記略』·『璿源譜牒』·『璿源續譜』 등으로 명명하며, 왕실 족보는 “璿源閣”에 보관하였다. 이처럼 “璿源”이란 용어는 왕실 일반을 상징하는 접두어의 의미로 사용하였고, 여기에 특정

용도의 용어를 합하여 복합명사의 형식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역대왕의 뛰어난 치적을 기록한 책으로 『國朝寶鑑』이 있다. 이 책은 역대 왕에 대한 치적과 교훈을 편찬한 후, 정치적 교훈으로 삼고자 작성한 책으로 왕과 신하가 정치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참고하였다.<sup>27)</sup> 『國朝寶鑑』은 세조이후 대부분의 모든 왕들이 관심을 가지고 편찬 및 참고하였는데, 몇몇 왕을 한꺼번에 모아서 편찬하거나 특정 왕을 지정하여 편찬하였다. 이렇게 편찬되는 책들은 『四朝寶鑑』·『穆陵寶鑑』·『文宗寶鑑』·『肅廟寶鑑』 등 다양한 이름으로 발행하였지만 책의 특성은 『國朝寶鑑』과 동일하며, 책명의 어미에는 “寶鑑”을 사용하였다. 『四祖寶鑑』에서 “四朝”는 태조·태종·세종·문종의 4왕을 의미하며, “穆陵”은 선조의 陵號를 의미하고, “文宗”과 “肅廟”는 각각 문종과 숙종의 廟號를 나타낸다. 즉 모두 해당 왕을 구분할 수 있는 용어에 “寶鑑”을 합하여 命名하였던 것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여 [표 4]·[표 5]에 나타내었다.

[표 5] 특정 왕대에 발간된 國朝寶鑑 사례

발간왕	책
영조	太宗朝寶鑑·文宗寶鑑
정조	世祖寶鑑·成宗寶鑑·英廟寶鑑
정조	世祖朝寶鑑·成宗朝寶鑑·中宗朝寶鑑
정조	明宗朝寶鑑·仁祖朝寶鑑·孝宗朝寶鑑
정조	顯宗朝寶鑑·十二朝寶鑑
순조	英宗寶鑑·翼宗寶鑑
헌종	正宗朝寶鑑·純宗朝寶鑑·翼宗朝寶鑑

27) 정형우, 『國朝寶鑑의 편찬경위』, 『동방학지』 vol 32, 1982, p.157

國朝寶鑑은 朝鮮 王朝 역대 君主의 嘉言 善政 사실 가운데 주요한 것만을 뽑아 기록한 編年體 史書이다. 그리고 國朝寶鑑을 편찬한 목적은 역대 君主의 功德을 記述 宣揚함으로써 후대의 王들에게 정치적 鑑戒가 되게 하고자 함에 있었다.

[표 4] 國朝寶鑑의 책명과 대상이 되는 왕과의 관계

발간왕	책	대 상
세조	四朝寶鑑	태조·태종·세종·문종
숙종	宣廟寶鑑	선조
영조	穆陵寶鑑	선조
영조	肅廟寶鑑	숙종
정조	五朝寶鑑	정종·단종·예종·인종·경종
정조	七朝寶鑑	세조·성종·중종·명종·인조·효종·현종
헌종	三朝寶鑑	정조·순조·문조(추존된 익종)

『列朝寶鑑』·『列聖寶鑑』·『先朝寶鑑』과 같이 先代王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 모두 『國朝寶鑑』의 다른 이름들이다. 그런데 조선왕조에서 『國朝寶鑑』은 약칭 『寶鑑』만으로도 사용하였으며, 『寶鑑』은 곧 『國朝寶鑑』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왕조시대의 기록에 왕실일반을 통칭하는 “璿源”과 정치적 교훈과 본보기로서의 의미를 갖는 “寶鑑”을 합하여 “璿源寶鑑”으로 사용된 예는 없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족보 관련 용어로 20여 종류 이상이 사용되었다. 특히 [표 3]에 나열한 『璿源錄』과 『譜牒』·『璿源譜略』·『譜略』항목은 숙종을 기점으로 상하 왕조에서 사용했던 왕실족보의 용어와 빈도수에 큰 차이를 보인다. 숙종 즉위초인 1681년(숙종 7) 왕실족보는 규모와 성격에서 크게 변화한다. 즉 『증친록』과 『유부록』으로 나뉘어 편찬되던 왕실족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50책 분량의 『선원록』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선원록』의 내용을 1권 분량으로 축약하여 『璿源系譜記略』을 간행하였다.<sup>28)</sup> 그리고 실록 또는 조선사회에서 『璿源系譜紀略』을 지칭할 때는 『璿源譜略』·『譜略』·『璿譜』 등으로 줄여서 사용하였다.

즉 숙종 이전에는 왕실족보를 『璿源錄』 하나로 통칭하여 사용한 반면,

28) 연갑수, 「19세기 宗室의 단절 위기와 宗親府 개편」, 『朝鮮時代史學報』 51, 2009, p.270

숙종 이후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璿源譜略』·『譜略』·『璿譜』이외에도 숙종 이전에 간헐적으로 사용되던 『譜牒』이란 용어도 사용되는 등, 용어가 다양성을 띠게 된다. [표 6]은 이러한 용어와 빈도수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표 6] 숙종 이후 실록에 등장하는 왕실족보관련 용어와 빈도수

	왕대	璿源譜略	譜略	璿譜	世譜
19	숙종	12	12	2	1
20	경종	4	5	1	
21	영조	23	54	10	
22	정조	7	15	3	6
23	순조	18	18	2	1
24	헌종	4	4		
25	철종	13	14		
26	고종	58	62	12	8
27	순종	2	3	1	1
	합계	141	187	31	17

영조와 정조, 고종 시기에는 [표 7]에 정리한 바와 같이 『御牒譜略』, 『國朝譜略』, 『璿源續譜』 등 특별히 해당 왕조에만 사용되는 용어의 족보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1681년(숙종 7)에는 왕비직계 조상을 대상으로 하는 『王妃世譜』가 처음으로 편찬되었다.<sup>29)</sup> 이 영향으로 이후 등장하는 “世譜”는 왕비관련 족보 즉 『왕비세보』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표 7] 특정 시기에 등장하는 왕실족보관련 용어와 빈도수

족보명	실록
宗親錄	태종 2·세종 2·세조 1·중종 1
類附錄	태종 1·세종 3·세조 1·성종 1

29) 원창애, 「조선 후기 선원보첩류의 편찬체제와 그 성격」, 『藏書閣』 제17집, 2007, p.41

족보명	실록
御牒譜略	영조 1
宗簿譜略	영조 1
國朝譜略	정조 1
璿源系譜紀略	숙종 2·정조 1·고종 1
璿源紀略	정조 2·순조 1
王妃世譜	숙종 1·정조 2·고종 5·순종 1
世子嬪世譜	순조 1·고종 2
列聖世譜	정조 1
璿源世譜	고종 1
璿派譜牒	영조 1
國朝譜牒	고종 1
璿源續譜	고종 10
續譜	고종 3

[표 8]은 “璿源寶鑑”을 키워드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검색한 결과이다. 이 자료를 통해 “璿源寶鑑”이란 책명을 사용한 족보들은 모두 일제시기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첫째는 조선왕조가 해체된 이후 왕실관련 족보는 정부가 아닌 전주이씨 문중차원에서 주관하였고, 둘째는 비록 당사가 일제시기이지만 족보를 편찬하면서 왕손들에 대한 기록인 왕실족보임을 강조하고 사가족보와 차별하는 의미로 “寶鑑”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추가하여 사용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金海金氏 문중에서도 『金海金氏王山世家璿源寶鑑』을 편찬하면서 “璿源寶鑑”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金海金氏도 근원을 소급하면 金官伽倻를 창업한 김수로왕의 후예, 즉 왕실의 후예라는 의미를 담아 족보명에 “璿源寶鑑”을 첨부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전주이씨 문중에서 “璿源寶鑑”을 사용한 후, 이 용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표 8] 『璿源寶鑑』 관련 자료의 문헌정보

책명	발행인	발행소	발행년도	판본	소장처
璿源寶鑑, 全	刊寫者未詳		1907	新鉛活字本	충북대학교 도서관
璿源寶鑑	李東秀 編	璿源譜所	1931	石版本	국립중앙도서관
璿源寶鑑	李東秀 編	全州李氏 璿源譜所	1931	石版本	국민대학교 도서관
璿源世派寶鑑	全州李氏大同 宗約所 編	刊寫地未詳	1937	新鉛活字本	국립중앙도서관
璿源世派寶鑑	李原生 編	全州李氏 大同宗約所	1937	新鉛活字本	국립중앙도서관
璿源世派寶鑑	李原生 編	刊寫者未詳	未詳	新鉛活字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金海金氏王山世家 璿源寶鑑	金賢哲 編	金海金氏 王山世家 北鮮靑陸會	1929	新鉛活字本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왕조에서 “寶鑑”은 선왕에 대한 정치적 교훈과 본보기로서의 의미로 왕실에서 사용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조선왕조가 끝나고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私家族譜를 중심으로 族譜名에도 “寶鑑”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표 9]는 “寶鑑”이라는 키워드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검색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가족보는 각 가문을 상징하는 姓貫 뒤에 “寶鑑”을 붙여 복합명사의 형태를 취하였다. 즉 文化柳氏의 族譜는 『文化柳氏寶鑑』, 南陽洪氏의 族譜는 『南陽洪氏寶鑑』, 安東金氏의 族譜는 『安東金氏寶鑑』 등으로 족보명을 만들었다.

조선후기와 일제시기에 문벌의 숭상·가문의 결속과 과시 등의 사회 풍조가 생겨나면서 譜學이 발달하였고, 이러한 문중의식은 족보를 통해서 구현되었다. 족보를 편찬함에 있어 전주이씨 문중은 왕실을 상징하는 “璿源”과 성스럽고 귀감이 되는 책이라는 의미의 “寶鑑”을 합하여 “璿源寶鑑”이라 작명하였고, 일반 사가에서는 “璿源” 대신 각 문중을 상징하는 姓貫

에 “寶鑑”을 더하여 작명하였다. 일제는 정치적·사상적 내용의 출판물 발행에는 엄격했던 반면 정치와 무관한 족보의 발간에는 관대한 정책을 취하여 이 시기 보학과 족보의 편찬이 성행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표 9] “私家族譜” 중에 “寶鑑” 이란 용어가 사용된 예

책명	발행인	발행소	발행년도	소장처
文化柳氏寶鑑	文化柳氏寶鑑 編纂委員會 編	文化柳氏寶鑑 編纂委員會	1990	조선대학교 도서관
南陽洪氏寶鑑	洪淳良 編	南陽洪氏寶鑑發刊會	1964	국립중앙도서관
安東金氏寶鑑	安東金氏寶鑑 編纂委員會 編	安東金氏寶鑑 編纂委員會	193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金海金氏寶鑑	金海金氏宗親會 編	刊寫者未詳	未詳	국립중앙도서관
宋氏大同寶鑑	宋氏大同寶鑑 編纂室 編	宋氏大同宗親會 大同寶鑑編纂委員會	1970	조선대학교 도서관
隋城崔氏百世寶鑑	崔基衡 編	隋城崔氏百世寶鑑 發刊會	1962	국회도서관
慶州李氏世傳寶鑑	李諤平 等	刊寫者未詳	1932	원광대학교 도서관

## 2. 『塔源寶鑑』의 출판환경

『塔源寶鑑』은 일제시기인 1931년에 편찬되었다. 『塔源寶鑑』의 서지사항 및 편찬경위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찬 당시의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식민시기 일제는 조선의 사상통제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 중에서도 출판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검열이었다. 일제는 한일 합병조약(韓日合併條約)이 이루어지기도 전인 1909년 2월 23일 법률 제6호로서 출판법을 공포한 뒤 본격적으로 출판물통제에 나섰다.<sup>30)</sup> 한일합병

30) 장신, 『한국감정 전후 일제의 출판통제와 ‘51종 20만권 분서사건’의 진상』, 『역사와 현실』, 2011, p.225

후에는 출판검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기구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거듭하였다.<sup>31)</sup> 경무국 도서과는 조선내에서의 모든 출판물과 영화, 음반 및 도화의 출판과 발행, 그리고 발매와 반포를 총괄 관장하였는데, 이 기구의 검열을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출판물도 공식적으로 출간될 수 없었다.<sup>32)</sup>

그럼에도 출판물의 발행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일제는 정치와 경제, 사상관련 출판물에 대해서는 엄격히 검열하고 출판을 제한하였다. 반면 통속소설과 족보분야 등 정치와 사상적 성격과 무관한 분야에 대해선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여 전체 출판물 양의 증대를 유도하였다.<sup>33)</sup> 일제는 이러한 현상을 정책의 성공으로 포장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당시 출판물의 대부분을 통속소설과 족보분야가 차지하게 되었는데, 『濔源寶鑑』의 발행도 왕실족보의 한 형태로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았을 것이다.<sup>34)</sup> 이에 조선인 검열담당자였던 위중기는 조선인출판물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족보를 봉건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족보폐지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sup>35)</sup>

---

31) 정근식, 「일제하 검열기구와 검열관의 변동」, 『대동문화연구』 제51집, 2005, p.4

· 1910~1919 : 경무총감부(헌병경찰) 고등경찰과 도서계

· 1920~1925 : 총독부 경무국 고등경찰과 도서계

· 1926~1943 :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

32) 한만수, 「일제 식민지시기 문학검열과 원본 확정」, 『대동문화연구』 제51집, 2004, p.47

33) 정근식, 「도서과의 설치와 일제 식민지출판경찰의 체계화」, 『한국문학연구』 30집, 2006, p.119

1926년의 종류별 출판 현황

전체 1,420건 : 통속소설 386건 · 족보 290건 · 정치경제 8건 · 사상 24건 등

34) 『동아일보』 1926년 5월 3일 기사

족보는 1912년 7건이 출판되었는데, 1921년에는 76건, 1925년에는 243건, 1926년에는 290건으로 증가하였다.

35) 정근식, 앞의 논문, 2005, p.28



[그림 1] 기증직인과 등록번호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를 중심으로 조선에서 시행된 ‘신문지법’과 ‘출판법’은 이미 일본내에서 제정·실시되고 있던 법들이었다. 이 법은 일본에서는 1893년 경보국 도서과에서 검열을 담당하던 것으로, 조선에서는 1926년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에서 검열을 담당하였다.<sup>36)</sup> 이 법에 의하면 출판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일전에 제본 2부를 첨부하여 당국에 신고해야 했다.<sup>37)</sup>

따라서 『濬源寶鑑』도 이 출판법을 따랐을 것이며, 발행일이 1931년 9월 30일 이므로 9월 27일전에 당국에 2부를 제출하고 신고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濬源寶鑑』의 권두(卷頭)에는 [그림 1]의 도장이 찍혀있다. 이 자료는 경무국 도서과에서 『濬源寶鑑』을 검열한 후, 이 책의 사료적 가치를 감안하여 1931년(昭和 6) 10월 30일 조선총독부 도서관에 기증형태

36) 이민주, 『일본 출판경찰의 법적 근거와 검열을 통한 언론통제』, 『한국언론학보』 54권 4호, 2010년 8월, p.74. 1893년에 제정된 일본의 출판법 제3조에는 「문서도화를 출판할 때는 발행의 날로부터 도달할 일수를 제하고 3일 전에 제본 2부를 첨부해 내무성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37) 이민주, 같은 논문, p.81

로 제출하였고 조선총독부 도서관에서는 이를 정식으로 접수하여 [朝鮮總督府 寄贈本]과 [圖書登錄番號] 도장을 찍어 보관하였던 것이다.

해방 후 국립중앙도서관은 총독부 도서관의 장서를 그대로 이어받아 출범하였으며, 이들 출판물 역시 “총독부도서관 장서” 도장과 “국립중앙도서관 장서” 도장이 함께 찍혀있어 총독부 도서관에서 나온 자료임을 입증한다.<sup>38)</sup>

## 맺음말

族譜는 신분과 지위에 따라 王室族譜와 私家族譜로 구분된다. 조선이 건국되고 왕실은 世系를 분명하게 하여 왕실의 위엄을 높이고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왕실족보를 편찬하였다. 왕실의 친족제도 정비와 왕실족보의 편찬은 私家의 족보편찬에 영향을 주었다. 혼인을 통해 왕실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대부들은 관료제와 신분제의 재정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왕실과 마찬가지로 족보를 편찬하였다.

족보는 많은 조상의 정보를 통일성 있게 기재하여야 하므로 생년, 과거 등과년, 관직, 졸년, 묘소의 위치와 좌향 등 제한된 정보만이 간략히 수록된다. 그런데 묘소의 정보는 글만으로는 묘사가 불가능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묘소 주위의 환경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를 山圖라 한다. 山圖는 통일신라 이후 중국의 풍수지리 이론과 함께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 초기에는 도읍을 건설하고, 왕릉, 태실 등을 정할 때 사전에 국왕에게 보고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山圖는 국왕의 국정운영 및 왕실의 중요한 행사의 참고 자료로 운영되었고, 그 당시에는 풍수그림의 의미보다는 지도로서의 의미가 컸다고 볼 수 있다.

『璿源寶鑑』은 전주이씨 시조인 사공공 李翰과 추존 4왕인 穆祖·翼祖

38) 한만수, 앞의 논문, 2005, p.58

·度祖·桓祖,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까지의 王陵 山圖를 수록하고 있어 왕실족보의 성격이 있다. 이 책은 전체 100쪽의 비교적 간략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山圖가 30점, 태조관련 사적지가 4점 수록되어 있다. 나머지 66쪽은 조선후기의 실학자 이공익이 찬술한 『燃藜室記述』에서 전주 이씨 시조·추존 4왕·태조 이성계에 대한 古事와 조선의 개국과정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이는 족보 구성을 위한 장치로 보이며 사료적 의미는 없다. 따라서 『璿源寶鑑』이 山圖에 중점을 둔 譜書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璿源寶鑑』에 수록된 山圖를 분석하여 8가지 특성을 유추하였다. 이는 『璿源寶鑑』 山圖뿐 아니라 조선의 왕릉도, 회화, 지도와의 연관성 그리고 사가족보에 수록된 山圖와의 비교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본고는 또한 『朝鮮王朝實錄』의 내용을 중심으로 『璿源寶鑑』의 어원에 대한 서지적 분석을 하였다. 실록에서 “璿源”이란 용어는 『璿源錄』·『當代璿源錄』·『璿源加現錄』·『璿源加現十代錄』·『璿源系譜記略』·『璿源譜牒』·『璿源續譜』 등 왕실 족보를 표기할 때 사용하였으며, 왕실 족보는 “璿源閣”에 보관하였고, 왕의 御眞은 “璿源殿”에 보관하는 등 ‘왕실 일반’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때 사용하였다.

그리고 역대왕의 뛰어난 치적을 기록한 책으로 『國朝寶鑑』이 있다. 이 책은 선왕에 대한 치적과 교훈을 편찬한 후, 정치적 교훈으로 삼고자 작성한 책으로 왕과 신하가 정치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참고하였다. 『國朝寶鑑』은 세조이후 대부분의 왕들이 관심을 가지고 편찬 및 참고하였는데, 몇몇 왕을 한꺼번에 모아서 편찬하거나 특정 왕을 지정하여 편찬하였다. 이렇게 편찬되는 책들은 『四朝寶鑑』·『穆陵寶鑑』·『文宗寶鑑』·『肅廟寶鑑』 등 다양한 이름으로 발행하였지만 책의 특성은 『國朝寶鑑』과 동일하며, 책명의 어미에는 “寶鑑”을 사용하였다.

『四祖寶鑑』에서 “四朝”는 태조·태종·세종·문종의 4왕을 의미하며,

“穆陵”은 선조의 陵號를 의미하고, “文宗”과 “肅廟”는 각각 문종과 숙종의 廟號를 나타낸다. 즉 모두 해당 왕을 구분할 수 있는 용어에 “寶鑑”을 합하여 命名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왕실일반을 통칭하는 “璿源”과 정치적 교훈과 본보기로서의 의미를 갖는 “寶鑑”을 합하여 “璿源寶鑑”으로 사용된 예는 한 차례도 없어 우리나라 王朝時代에는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왕실족보의 마지막 형태는 『璿源續譜』이다. 『璿源續譜』는 각 왕의 자손록으로 각 왕의 왕자를 派祖로 삼은 派譜를 모아 놓은 것으로, 私家族譜의 大同譜에 해당한다. 『璿源續譜』의 간행은 대원군이 주도하였다. 대원군은 『璿源續譜』의 간행을 통해 종친부를 중심으로 가문의식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왕권강화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譜學은 자기 집안의 족보뿐만 아니라 타 가문의 족보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 譜學은 조선후기 문벌숭상의 사회 풍조가 생겨나면서 더욱 발전하였다. 이러한 가문의식은 족보를 통해 구현되었으며, 한말과 일제 때는 조선 전기부터 족보를 간행했던 명문·거족들의 족보속간이 더욱 활발해졌다. 일제는 정치, 학술, 사상 관련 서적 출판물은 검열기구를 통해 엄격히 규제하였다. 반면, 구소설과 족보 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문제 삼지 않는 비정치적 출판물에 대해선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여 족보간행의 전성기를 이룬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조선왕조 모든 왕릉에 대한 山圖가 수록된 『璿源寶鑑』이 출간되었다.

이러한 출판물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일제는 1926년 ‘출판법’을 제정하였고,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에서 검열을 담당하였다. 『璿源寶鑑』도 이 출판법을 따랐을 것이며, 발행일이 1931년 9월 30일 이므로 출판 3일전인 9월 27일전에 당국에 2부를 제출하고 신고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료는 경무국 도서과에서 『璿源寶鑑』을 검열한 후, 이 책의 사료적 가치를 감안하여 1931년(昭和6) 10월 30일 조선총독부 도서관에 기증형태로 제출하였고 조선총독부 도서관에서는 이를 정식으로 접수하

여 [朝鮮總督府 寄贈本]과 [圖書登錄番號] 도장을 찍어 보관하였던 것이다.

즉 국립중앙도서관은 총독부 도서관의 장서를 그대로 이어받아 출범하였으며, 이들 출판물 역시 “총독부도서관 장서” 도장과 “국립중앙도서관 장서” 도장이 함께 찍혀있어 총독부도서관에서 나온 자료임을 입증한다.

본고에서는 『璿源寶鑑』의 분석을 위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는, 『朝鮮王朝實錄』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지적 분석을 통해 “璿源寶鑑”에 대한 어원적 관련성을 추적하였으며, 둘째는, 『璿源寶鑑』의 일제시기 발행과정과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기까지의 과정을 밝혔다.

그러나 『璿源寶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山圖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련 왕릉도와 山圖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부 추가로 발굴된 자료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는 연구는 다음 논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주제어** : 선원보감, 산도, 족보, 왕실족보, 조선왕릉

(논문투고 : 2013.5.1 / 논문심사완료 : 2013.5.19 / 논문게재 확정일 : 2013.5.23.)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김두규, 『풍수학 사전』, 비봉출판사, 2005.  
김상형,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2.  
선원보감편찬위원회, 『濔源寶鑑』, 계명사, 1989.  
이궁익, 『燃藜室記述』 권1, 민족문화추진회, 1966.  
이성미 외, 『조선왕실의 미술문화』, 대원사, 2005.  
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 권기석, 『한국 族譜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학논집』 제44집, 2011.  
김수경, 『17세기후반 宗親의 정치적 활동과 위상』, 『梨大史苑』, Vol 30, 1997.  
노정식, 『韓國古地圖 資料 및 그 研究成果와 새 方向摸索을 위한 一研究』, 『대구교대 논문집』, 1977.  
박대운, 『朝鮮時代 國王胎封의 風水의 特性 研究』, 동방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연갑수, 『19세기 宗室의 단절 위기와 宗親府 개편』, 『朝鮮時代史學報』51, 2009.  
원창애, 『조선 후기 선원보첩류의 편찬체제와 그 성격』, 『藏書閣』 제17집, 2007.  
이기봉, 『김정호의 『청구도』 제작 과정과 지도적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

- 지리학회지』제39권 제3호, 2004.
- 이민주, 『일본 출판경찰의 법적 근거와 검열을 통한 언론통제』, 『한국언론학보』 54권 4호, 2010.
- 이상해, 『中國 山水畵와 風水原理와의 相關關係에 關한 一考察』, 『대동문화연구』, 1988.
- 이형운, 『조선시대 산도를 통해서 본 지리인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형운, 『風水地理 山圖에 關한 研究』, 대구한의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장신, 『한국강점 전후 일제의 출판통제와 ‘51종 20만권 분서사건’의 진상』, 『역사와 현실』, 2011.
- 정근식, 『일제하 검열기구와 검열관의 변동』, 『대동문화연구』 제51집, 2005.
- 정근식, 『도서과의 설치와 일제 식민지출판경찰의 체계화』, 『한국문학연구』 30집, 2006.
- 정형우, 『國朝寶鑑의 편찬경위』, 『동방학지』vol 32, 1982.
- 차장섭, 『조선시대 족보의 유형과 특징』, 『歷史教育論集』제44집, 2010.
- 최호림, 『조선시대 태실에 관한 일 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 vol 7, 1985.
- 한만수, 『일제 식민지시기 문학검열과 원본 확정』, 『대동문화연구』 제51집, 2004.

## The Basic structure of 『Seon'weon Bogam(璿源寶鑑)』, and how and why it was published

Hwang, In-hyuk  
Kim, Ki-duk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the genealogical records of the royal family(王室族譜) did not contain a “Mountain List(San-do, 山圖).” ‘Neungjeon-do’(陵殿圖, Pictures of Royal tombs and shrines) and ‘San'reung-do’(山陵圖, Pictures of Royal Mausoleums) illustrations were created and stored separately from the genealogical records. They were fashioned as ‘Royal Occasion records’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the royal mausoleums, and related issues such as commemorative rituals, repairs and preservation.

But the 『Seon'weon Bogam(璿源寶鑑)』 examined here, which was also a genealogical record for the royal family, had an internal design and contents that were entirely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royal family genealogical records. It had a ‘Mountain List’ with every Joseon royal mausoleum described in it at the front of the book, and it also placed the genealogical records section in the aft section of the book. The design was distinctively different from other previous royal family genealogical records.

As there are currently not much information concerning the Joseon

dynasty royal mausoleums, the ‘Mountain List’ in 『Seon’weon Bogam』 is an invaluable source of information which lets us know the internal structure and meaning of the Joseon dynasty royal mausoleums. Examined in this article is the 『Seon’weon Bogam』 publish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in order to examine and analyze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e “Mountain list” in it.

**Key Words** : Seon’weon Bogam(塔源寶鑑), Mountain List(Sando, 山圖), the genealogical records, the genealogical records of the royal family the Joseon dynasty royal mausoleums

